

# 휴대폰업계, 불법복제와의 전쟁 선포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노키아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가세했다. 핸드폰의 브랜드가 중요한 구매기준이 되면서 이들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한 액세서리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노키아와 삼성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같은 복제품의 조악한 품질로 인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상표등록 전문변호사 빌 코츠는 '휴대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이 아닌 중요한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길거리 상표를 원하지 않는다'며 휴대폰 구매에서 브랜드가 핵심적인 가치기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노키아와 삼성은 지난달 각각 미 지방법원에 휴대폰 액세서리 복제품 제조업체들을 고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세계 최대의 핸드폰 제조업체인 노키아는 지난 2월 13일 미국 마이애미 지방법원에 플로리다 남부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브랜드 무단도용으로 고소했으며 '이들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노키아의 명성을 상업적인 거래에 이용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노키아는 이들이 노키아의 구형 휴대폰을 대량 매입, 임의로 제작한 액세서리 등을 부착해 마치 신제품처럼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키아는 법원에 모조품의 판매 금지와 파기를 요구했으며, 각각의 모조품에 대해 약 100만 달러의 피해보상도 요청했다. 휴대폰 시장 세계 3위인 삼성도 지난 2월 10일 달라스 지방법원에 캘리포니아의 한 회사를 휴대폰 액세서리에 삼성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하고, 위조된 제품을 압수해 파기할 것을 주장했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모조품 제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협력체제 구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키아와 삼성 등의 이름을 도용한 모조품은 휴대폰 케이스, 배터리, 이어폰 등 휴대폰에 사용되는 액세서리 전체에 퍼져있다.

'휴대폰은 소비자 가전제품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분야로 노키아나 삼성 브랜드가 적힌 불량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제품 전체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옴니콤 그룹의 브랜드가치평가 담당자인 켄 린드만은 지적했다. 전세계 휴대폰 매출은 가격하향으로 인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노키아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휴대폰 매출은 지난해 5% 이상 늘어 4억500만대에 달했으며, 올해는 최소한 10% 증가해 4억4,500만대가 팔릴 것으로 내다봤다.

# 특허청 한국의 특허 동향 발간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특허출원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한 '83년부터 '01년까지 18년 동안 공개된 67만7,835건(일부 미공개 건수는 제외)을 대상으로 통계를 분석한 '한국의 특허 동향'을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특허를 내·외국으로 구분할 경우 내국인 출원건수는 전체 특허의 60.6%인 41만862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내국인 특허 41만862건을 연구 주체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업이 81.5%인 33만4,672건, 공공기관이 3.0%인 1만2,147건, 대학(교수 개인 명의의 출원은 제외)이 0.4%인 1,820건, 그리고 개인 등이 1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연구 주체 중 최근 기초기술과 공공기술 개발의 주체로써 주목받고 있는 공공기관과 대학의 특허분포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특허 1만2,147건 중 90.7%인 1만1,017건을 정부출연 연구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출연 연구소 특허 1만1,017건 중에서 1건 이상 특허 출원한 연구소는 18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학의 경우 지난 18년 동안 1개 이상 특허를 출원한 대학은 68개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전자통신원이 정부출연 연구소 특허의 62.8%인 6,780건을 차지하였고, 다특허출원 정부출연 연구소 기관 순위를 보면, 2위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1,699건(15.4%), 3위가 한국화학연구원으로 956건(8.7%), 4위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381건(3.5%), 5위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48건(2.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이들 상위 5개 다특허출원 연구소가 정부출연 연구소 특허의 92.7%를 차지하여 정부출연 연구소간 특허활동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특허청은 '연구기관의 특허역량을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함과 아울러 특허정보분석을 통한 국가 기술예측, 글로벌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소와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17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파일 형태로 무료 서비스될 예정이며 CD와 책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및 연구소 등에게 국가 전반에 걸친 기술경쟁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기술전략 및 국가 연구개발 정책 등에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 2002년도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기록

특허청은 지난달 작년 한 해 산업재산권 출원이 세계 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02년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 4권의 총 출원건수는 29만86건으로, IMF의 영향으로 급감하였던 지난 1998년의 출원건수 18만5,209건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56.6%의 대폭적인 출원증가를 기록했다. 이 출원량은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점하는 것이다.

내국인은 기술수준이 높은 '특허'에 대한 출원증가 경향이 뚜렷하여 전년대비 3.9% 증가한 총 7만6,559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내국인의 총 출원건수는 24만686건으로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외국인은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출원증가세를 보여 외국인의 실용신안 출원은 27.7%, 의장출원은 22.0% 증가한 한편, 외국인의 총 출원건수는 4만9,400건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하였다.

국내 100대 다출원업체의 출원 증가율도 돋보여 국내 100대 다출원업체의 출원건수는 5만6,669건으로 전년대비 9.5%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기술수준이 높은 특허에 대한 출원이 3만7,629건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한 부분이 주목된다.

또한 2002년도 산업재산권 신규 등록도 2001년보다 19.6%증가한 15만3,063건이 신규 등록되었다.

이들 산업재산권을 권리별로 보면 기술력의 상징인 특허는 30.6%가 증가한 4만5,290건이 등록된 반면, 실용신안은 8.9%가 감소한 3만9,955건이 등록되었고, 디자인 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의장의 경우는 46.0%가 증가한 2만7,234건이, 브랜드는 20.5%가 증가한 4만584건이 신규 등록되었다.

신규 등록이 증가하게된 원인으로는 특허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명장려사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여성발명가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 사업 지원이 컸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광고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2203-9460

❀❀ 한국여성발명협회 제2대 한미영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

  
**“발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 주 | 삼국인쇄산업기획**

대표전화 (02)2278-3254 서울 중구 예관동 126-1 | 제품카타로그 | 기업보로슈어 | 패키지디자인 | 광고디자인 |